

Art

April 2025 | 편집부



최재은 개인전 <자연국가>, 국제갤러리

최재은은 조각·설치·건축·사진·영상·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생명의 근원과 시간, 자연과 인간의 복합적 관계를 사유한 작품을 선보인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세 번째 개인전을 통해 작가는 오랜 관심사이던 '숲'을 다채롭게 해석했다. 현재 거주 중인 교토의 동네 숲을 산책하며 모은 낙엽과 꽃잎을 재료로 물감의 안료를 만들어 캔버스에 칠하는가 하면, 회화 표면에는 숲속을 거닐며 들은 바람·새소리·빗소리 등을 그대로 음차해 흑연으로 적었다. 이 외에도 텍스트, 조각, 영상 등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숲의 빛과 소리에 대한 작가만의 해석을 보여준다. 5월 11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최재은, '세로운 유대', Wood structure with pressed flowers on 112 urushi lacquered wood panel, framed, 212.6x238x6.9cm, 2025.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최재은 스튜디오.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